

## 더불어민주당 - 간호협회 정책협약식

### 국민건강 위한 간호 현안과제 해결 협력키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간호협회와 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4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의 전 국회의원, 정책본부 본부부장인 정준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정책협약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김용의 공동본부장(왼쪽에서 넷째)과 정준숙 본부부장(왼쪽에서 셋째),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김옥수 회장, 김남초 제2부회장, 박영우 단원직 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 박경숙 이사, 이명혜 이사, 양수 감사 등이 참석했다.

김용의 정책본부 공동본부장과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등 간호수가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간호사의 충분한 배치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과 국민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산시키며,

이를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인력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노인인구의 증가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간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문간호사 활용 등 간호의 전문성 향상 및 간호사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4.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폭증하는 노인인구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간호분야(보건소 방문간호, 의료기관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활성화와 함께 담당인력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5.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과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중

보건장학특례법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및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김용의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준숙 정책본부 본부장은 “오늘 협약한 과제들이 정책화되고 현실화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면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제시한 간호현안 과제들을 잘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간담회

### 간협,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에게 '정책제안서' 전달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간담회에 4월 24일 참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정준숙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김옥수 회장과 김남초 제2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에게 전달했다.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은 “간호협회에서 준비한 정책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을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인력확보와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에 힘써달라”면서 “특히 간호사 인력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간호사 이직률이 높아지고 경력간호사가 부족해지면 결국 환자



왼쪽부터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특보단장, 김남초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법·제도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정착 △간호사 이직 방지 및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분야 활성화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등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자유한국당 선대위 중앙직능본부와 정책간담회

### 간협, 김승희 제5본부장에게 '정책제안서' 전달

대한간호협회는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앙직능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김승희 자유한국당 선대위 중앙직능본부 제5본부장을 4월 13일 국회에서 만나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선대위 중앙직능본부 제5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승희 국회의원은 “간호계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며 대안공약과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국민들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계 현안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정책제안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김승희 자유한국당 선대위 중앙직능본부 제5본부장(사진 왼쪽)을 만나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법·제도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면서 “국민들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계 현안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 음주문화 개선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

보건복지부는 대학 내 음주문화 개선을 선도해나갈 전국 77개 대학, 80개팀 총 2000여명의 대학생들로 이뤄진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를 지원한다.

절주서포터즈는 대학 내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5개 대학에서 시작했다. 2014년 28개 대학, 2016년 76개 대학에 이어 올해는 전국 77개 대학이 참여한다.

절주서포터즈는 대학 내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널리 알리고, 대학 내 '술 없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간호대학을 비롯해 의료·

보건·홍보·사회복지 등 전공분야를 살린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절주서포터즈의 활동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활동을 펼친 총 8개팀을 선발해 시상하고,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7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발대식은 '젊음, 절주를 응원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4월 12일 열렸다. 서포터즈 절주수칙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선배 서포터즈의 활동 노하우를 전달하는 '절주 Talk!'과 'SNS 홍보전략 특강' 등이 진행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 '마리안느-마가렛 자원봉사학교' 건립 추진

### 소록도에서 헌신한 간호정신 계승

제2의 마리안느-마가렛을 육성하기 위한 '마리안느-마가렛 자원봉사학교'가 건립된다.

자원봉사학교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전남 고흥군(군수·박병종)과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사장·김연준) 간의 업무협약식이 4월 14일 열렸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헌신병 환자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을 실천한 오스트리아인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기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리안느-마가렛 자원봉사학교' 건립이 추진된다. 201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흥군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정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조례를 2015년 제정했으며, 이들에게 매달 1004달러(약 110만원)의 연금을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집, 병사상 및 헌신인 유품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했다. 두 간호사가 제2회 만해대상 실천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고,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에는 '마리안느-마가렛 자원봉사학교' 건립,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서면 축사를 보내 협약식을 축하했으며, 장영숙 전남간호사회장과 박인혜 광주시간호사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고흥군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시사회를 4월 10일 광주 CGV 광천터미널점에서 가졌다. 영화는 4월 20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살사별자 수기집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회복과정을 담은 수기집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했다.

책은 지난해 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센터가 실시한 자살사별자 수기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글 중 총 29편을 추려 엮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또는 친구나 연인을 잃은 아픔과 더불어 아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느린 회복의 과정이 담겨 있다.

수기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용택 시인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내고 살고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찾아 나선 이들의 생생한 기록”이라며 “빠른 회복과 자책과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얼굴인 희망이 범벅된 눈물의 책”이라고 말했다.

총 2500부가 교보문고 7개 지점,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됐다. Yes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등 온라인서점에서도 e

book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도서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자살예방센터(02-2203-0053, spc@spckorea.or.kr)로 문의.

한편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 연간 자살자는 2015년 기준 1만3513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살자 1명이 발생하면 주변의 5~10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사별자는 70만명에 이른다. 자살사별자는 가까운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뿐 아니라 죄책감이나 분노, 사회적 편견, 가중된 역할 부담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7배, 자살위험이 8.3배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자살원인 분석과 유가족의 심리 지원을 위한 심리부검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241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자조모임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5월 4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04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 간호사국가고시 ▶ 위생사      연세대 RN-BSN

##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1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 학원직강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8 연세대 RN-BSN**

db 대방열림 개강일 : 7월 8일 / 선착순 60명 접수중      노성인 교수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강 및 동영상 강의 진행